



한 영

1993.01.08 (만29세)

010-9645-2457

mandy2457@naver.com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35길 150(황금동, 청원맨션) 101동
309호

학력사항 (최종 학력 : 고졸)

영진 전문 대학

건축인테리어학과(3.51/4.5)

2018.03 - 2018.12

중퇴

경북고등학교

자연계열

2009.03 - 2012.02

졸업

경력사항 (총 2년 4개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사원

2012.12 - 2013.03

4개월 근무

- 배관공 보조 업무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사원

2015.08 - 2015.12

5개월 근무

- 배관공 보조 업무

(주)관문

2016.01 - 2016.12

건설 및 분양

1년 근무

- 사업계획홍보
- 사원 및 고객 유치
- 상담 및 사원 관리

스파앤피드

2017.01 - 2017.07

분양 대행 업체

7개월 근무

- 사원 및 고객 유치
- 본부 실적 관리
- 상담 및 사원 관리

자격증 및 교육활동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2021.06 - 2022.01

스마트팩토리 과정

이수중

자기소개서

‘경험 기술서’

C# 프로그래밍 ui 프레임워크(윈폼)을 사용하여 사용자 화면 설계와 구현을 학습하여 윈도 애플리케이션(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db를 공부하면서 개념설계(er 다이어그램), 논리설계, 물리 설계를 연습하면서 윈폼 ui 프로그램과 연동하였습니다.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바로 테이블 생성 후 데이터를 관리함 으로 특정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편리함과 실용성을 추구하며 더욱 개발적인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오라클과 연동된 프로그램에 http 통신을 적용하여 cloud 서버에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기능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여기에 일반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시리얼통신 rs-232통신 기능을 기존의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실패, 경험과 극복’

과거 종사하던 일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건물을 분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로지 영업의 성과만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또한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대비 계약을 성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스스로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난관에 부딪혀 이러다 한 성과를 내지 못해 좌절할 적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문득 ‘계약을 성사해 성과를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에 첫째로 자존심과 실적을 버리고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을 찾아가 낮은 자세로 당분간은 수업료를 낸다는 마인드로 오직 그 사람의 성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자 잘하는 사람 하나하나 마다의 노하우를 엿볼 수가 있었고 배움을 기반으로 나 자신만의 성과를 내는 법과 저의 문제점이 하나 둘 보임과 동시에 개인주의가 철저한 분양 바닥에 한 명 한 명 내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의 팀을 구성해 개인은 할 수 없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모든 일에 경험과 노력, 배움이 있어야 그 틀을 기반으로 성장 하듯이 곧이어 팀장의 직급으로 신규 오픈한 현장에 한 본부로 투입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가 팀원들과 합심하여 혹은 조력자의 입장이 되어 가르쳐야 할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팀원들을 케어 해주고 적응이 어려운 사람,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 등 다양각색의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질 수 있도록 우리는 ‘팀’이라는 분위기를 갖추게 하여 높은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 대행사로 투입 된 3개의 본부 중 인원은 가장 적지만 성과는 1등인 본부로 대표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다른 현장에 추천도 받았지만 다른 배움을 고수하여 방향을 바꾸었지만 2년 정도의 시간동안 돈을 떠나서 그간 배운 경험은 꼭 특정 분야가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협동해서 하는 일에 기여한 경험’(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수정바람)

교내 프로젝트에서 C# 프로그래밍과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라인트레이서 및 센서 감지 그리고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앱인벤터를 활용하여 수동 조작 조이스틱 어플 구현 및 블루투스 연동을 통해 조이스틱과 아두이노를 통신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팩토리 과정이 있는 학원에서 교육을 이수 중 입니다. 과정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조원을 꾸려 팀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산업체 내에 가상의 Line운영 및 아두이노를 이용한 라인트레이서에서 실제 공장에서 하는 일들을 조사하고 어떤 방식의 산업현장을 구상할지 설계하며 구상하였습니다. 팀원들 의견을 모아 대략적인 진행 방향을 제시하고 서로 필요한 물품, 구현 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조율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양각색의 사람들이 서로 구현 하고자 하는 취지가 달라 의견 조율에 문제가 있었지만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팀보다는 위대 할 수 없기에 먼저 팀원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본인의 의지가 강하고 고집이 센 팀원에게는 일단은 제시한 의견대로 이행 하며 진행 중 불합리 적이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문제점들과 그 외에 할 일들을 다소 미흡하거나 의견이 불분명한 팀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제시하여 팀원들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집단의 효율을 이끌었습니다. 설계를 구상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서로 협력 하여 과정을 순조롭게 하여야 하지만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정석의 방식을 전제 조건으로 집단의 성격을 빠르게 파악하여 일의 진행을 원활하고 순조롭게 처리하는 역할을 하여 공장 Line운영에 있어 지정 라인 운행, 탑재, 적재, 긴급 상황, 블루투스를 이용한 수동조작을 구현하여 프로젝트를 성공 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입사 후 나의 포부’

특정 분야를 구분 짓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자로서의 경험을 쌓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비록, 개발자의 길로 늦게 발을 들여서 배움의 과정이 길지는 않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될 까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인터넷 강의나 개발자 커뮤니티에 질문해 해결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수업 진행 중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자기계발과 건강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개발자의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지식과 이를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개발자도 사람일 것이고 사람이라면 체력이 뒤를 받쳐줘야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맡은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꾸준한 자기 계발, 그 업무를 버틸 수 있는 체력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 팀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갈구 하고자는 성취와 열정으로 궁극적으로 도달 하고자는 자본시장의 IoT활성화에 중심이 되고 싶습니다.
